

SOC 국비 1조4천억 확보…전남 교통망 혁신 ‘착착’

도로 5천600억…연륙·연도교 등 현안 속도

차기 국가계획 대규모 신규사업 반영 총력

전남도가 내년 SOC 국비 예산으로 1조4천억 원을 확보하며 교통망 혁신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로써 전남도는 10년 연속 SOC 국비 예산 1조 원 이상 확보에 성공했다.

전남도가 확보한 SOC 국비는 총 1조4천95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도로 분야 예산은 5천600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국지도 확충, 연륙·연도교 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속도로 분야에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강진을 잇는 1단계 구간은 잔여 공사비 1천336억원을 전액 확보해 2026년 11월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2단계인 강진-완도 구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80억원을 확보해 1단계 준공 이전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광주-완도 전 구간이 완공되면 완도에서 광주 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2시간10분에서 1시간10분대로 1시간가량 단축된다. 이에 따라 전남 남부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은 물론, 물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국지도 사업에는 20개 지구에 총 4천140

억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연륙·연도교 사업인 암해-화원, 화대-백야, 비금-암태,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4개 지구에 2천635억원이 반영돼 섬 주민 교통 기본권 확보와 함께 영광에서 목포, 여수, 부산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의 핵심 출입 ‘서남해안 일주 관광도로’ 완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10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확장 사업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 80억원이 배정돼 초기 착수가 가능해졌다. 고흥-봉래 구간은 당초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대상이었으나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통과되면서 제6차 계획에 앞당겨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는 전남도의 다른 주요 국도·국지도 사업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여력도 함께 확보됐다.

이와 함께 주요 국도 사업으로 고흥-벌교-순천 주암 605억원, 곡성-석곡IC-겸면 309억원, 화순 동면-순천 송광 199억원이 반영돼 도내 간선 도로망도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지도 분야에서는 내년 착공 예정인 담양 고서-창평을 포함해 설계지구 2곳과 계속지구 3곳 등 총 5개 지구에 정부 예산 106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2026년 확정 예정인 국토교통부 도

로 분야 차기 국가계획에도 대규모 신규 사업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7건 23조4천억원(영암-광주, 고흥-광주 고속도로 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19건 2조7천억원 등으로 총사업비 규모만 26조원에 달한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남 핵심 SOC 사업이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된 것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내년에 확정될 고속도로와 국도·국지도 국가계획에도 전남 현안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사지 말고 빌려쓰세요” 광주 서구 물품공유센터 5호점 개소식이 22일 서구 화정4동 공유센터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생활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물품공유센터는 1천 원 기획세트와 공연·교육·놀이 물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는 곳이다. <광주 서구 제공>

“자전거, 일상 교통수단 돼야”

광주시 ‘제6차 대자보 도시 시민포럼’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전략 등 논의

광주시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2일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제6차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 시민포럼’을 열어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전거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제용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공동대표는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전략과 지역 해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대표는 지속할 수 있는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전거를 지목하면서 자전거 수단 분담률 제고를 위해 시민참여형 자전거 운동 확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명구 전국생태교통네트워크 위원장은 7년간 전국 단위로 추진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의 성과와 과제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레저를 넘어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고 공유했다.

주제 발표 이후 조진상 광주환경운동연합 공

동의장이 좌장을 맡아 최규식 산월초 교감, 나부기 바이크린 대표, 김광훈 에너지파크 해담마루 센터장, 장학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 대표가 참여해 ‘광주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집 앞부터 목적지까지 끊김 없이 안전하게 연결되는 자전거 기반시설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와 제도 정비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의무 교육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특전(인센티브)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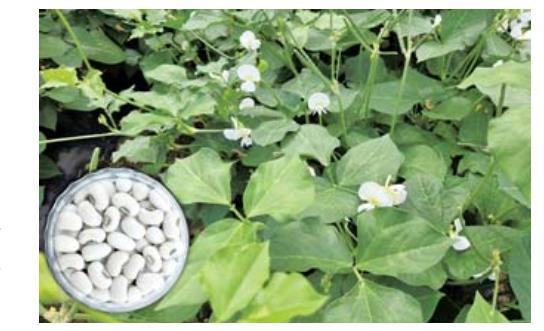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자전거 정책은 광주시가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시민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농기원, 동부 신품종 ‘미당’ 개발

기존比 수량성 13% ↑ 기계수확 장점

수입산 많은 동부 원료 국산화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국내 최초로 흰색 껍질을 가진 동부 신품종 ‘미당’(사진)을 개발해 수입산에 의존하던 동부 원료의 국산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동부는 콩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작물로 주로 떡과 양금 등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된다. 전남은 전국 동부 재배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 산지로 영광은 전국 최대 생산지로 꼽힌다.

그러나 국산 동부 생산량이 제한적이어서 가공 산업 현장에서는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특산품인 영광 모싯잎송편에 사용되는 동부 소 원료의 90% 이상을 미얀마 등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미당은 국내 최초 흰색 껍질 동부 품종으로 가공 적합성이 뛰어나 송편소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 산업 분야에서 수입산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당은 직립형으로 기가 54cm에 달해 기존 품

/양시원 기자

종인 옥당보다 약 15cm 커 기계수확에 유리하다. 단위 면적당 생산 가능한 양인 수량성이 10a당 170kg으로 옥당보다 13% 높다. 수분 흡수율이 높아 가공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도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현재 미당에 대한 품종 보호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영광을 중심으로 농가 실증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싯잎 송편뿐만 아니라 두유와 단팥죽 등 가공 분야로 활용성을 넓혀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미당 품종 개발자인 최진실 식량작물연구소 연구사는 “농가 현장 실증과 품종보호 출원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농가와 산업체가 안정적으로 품종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道, 고립·은둔 위기청소년 성장 맞춤형 지원

전남도는 22일 “성평등가족부의 2026 고립·은둔 위기청소년 정책 지원 사업에 선정돼 고위기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한 1대1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 하반기부터 총사업비 1억7천300만원을 들여 고립·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전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담 인력 6명을 배치해 학업 중단 후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운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방문 상담·학습, 치유 지원 등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 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률80%) 분양가 : 3.3m²/45만원

<1차 15가구>

<2차 6가구>

성황리 입주완료

입주완료

입주완료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 +관리사 +후게실 (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 (기술지도)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